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주식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82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64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864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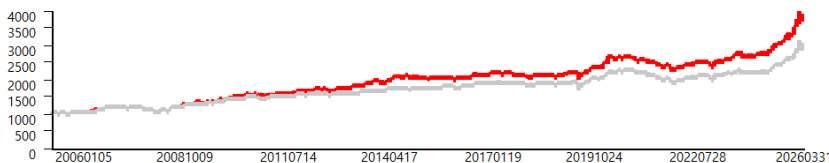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7.30%	8.90%	16.89%	33.74%	39.56%	49.04%	40.59%	263.99%
클래스 C	-7.38%	8.68%	16.43%	32.70%	37.37%	45.55%	35.10%	117.35%
클래스 C-E	-7.35%	8.75%	16.58%	33.05%	38.10%	46.71%	36.91%	65.75%
클래스 C-F	-7.33%	8.82%	16.72%	33.36%	38.75%	47.75%	38.54%	118.24%
벤치마크	-7.35%	6.74%	14.55%	29.58%	30.26%	38.97%	29.35%	184.4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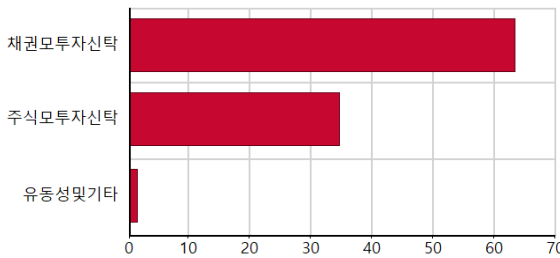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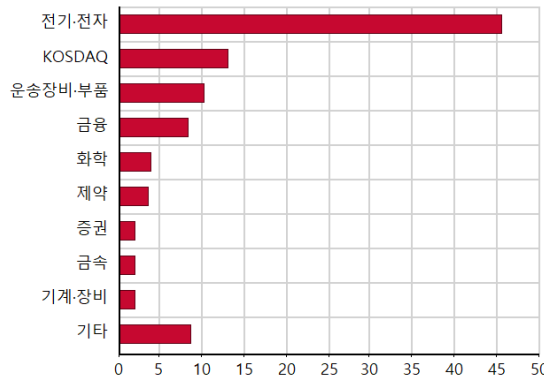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3.8
2	주식모투자신탁	34.7
3	유동성및기타	1.5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전기·전자	45.6
2	KOSDAQ	13.2
3	운송장비·부품	10.2
4	금융	8.4
5	화학	3.9
6	제약	3.5
7	증권	2.1
8	금속	2.1
9	기계·장비	2.1
10	기타	8.7



자산별 상위 5개 보유 종목 (2026년 03월말, 모두자산탁 기준)

채권TOP5		비중 (%)	주식TOP5		업종	비중 (%)
국고02250-2806(25-4)		12.0	삼성전자	전기·전자	24.8	
국고채권02750-2812(25-10)		9.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3.9	
롯데카드539-4		7.6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2.3	
국고03750-3312(13-8)		4.7	KB금융	금융	2.1	
JB 우리캐피탈530-4		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C, C-E, C-F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3월 KOSPI는 전월 대비 19.08% 하락한 5,052.46pt, KOSDAQ은 11.77% 하락한 1,052.39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 KOSPI는 서치 브레이크가 2회 발생(2020년 3월 이후 월 2회는 처음), 사이드카가 7회 발생하는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금동락세를 겪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여타 중시도 연초 이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직전 고점 대비 10% 넘게 하락하는 조정 장세에 진입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들이 고점 대비 30%에 가까운 조정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방어주의 역할을 했던 화장품, 통신서비스, 음식로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반면,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컸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로봇 밸류체인으로 수급이 이동하면서 하락폭이 컸고, 반도체 업종도 가격 상승 모멘텀 둔화 우려, 터보퀀트에 따른 사용량 축소에 대한 우려 등이 중첩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40원으로 전월 대비 6.24% 상승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51.27% 상승한 배럴당 101.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이 32.8조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은 35.6조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0.26조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원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 업종, 시장 조정 구간에서 인터넷 업종과 보험 업종의 언더웨이트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반도체 업종의 추가 조정,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던 코스닥150 의약, BTS 국내 투어 시작에 따른 차이실현이 발생한 엔터 투어 업종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방산 부문 수주 증가와 미국 하반기 주파수 경매 이후 본격적인 발주가 기대되는 RFHIC, 미국 원전 투자 수혜가 예상되는 태웅,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가치 부각이 기대되는 OCI홀딩스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시장 조정 구간에 오버웨이트하고 있었던 삼성전자, LO 기대감을 보유한 애플론, 로봇 밸류체인인 한국피아이엠의 추가 조정 등이 펀드 성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 조정 구간에서 벤치마크에 대한 복제율을 높이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버웨이트되었던 IT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에 따른 수요 기대감으로 방산 업종의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기대감을 보유한 2차전지 업종 또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유틸리티 업종의 비중을 축소하였습니다.

채권시장은 2월 말 금통위 이후 금리 인상 경계가 완화되었으나, 3월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며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점검 회의 가동, 13조 원 규모 금융지원 및 '100조 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금리 상승 압력을 되돌리기에겐 제한적이었습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우려로 글로벌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며 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과 기재부의 바이백순상환 계획 등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투라 FOMC의 차기 회의는 총체 후보자의 매파적 성향 부각 등 여러 요인으로 금리 상승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속에 시장 약세가 이어졌으며,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51.5bp 상승한 3.555%, 10년 금리는 43.2bp 상승한 3.877%로 마감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4월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4월 중 전쟁에 대한 번복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최근의 지지율 하락 등을 볼 때 5월 이전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란의 입장에서도 전력 재정비를 통한 전쟁 대응 능력의 충원이 장기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일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회를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대적인 전쟁의 확대보다는 중동 내 국지적인 분쟁이 지속되더라도 이번 전쟁은 일시적인 봉합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전개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인 만큼, 지수의 밸류에이션 레벨 점검도 필요합니다. 과거 금융위기나 팬데믹 등 극심한 침체가 3회를 제외하고는 KOSPI 지수가 PER 8배를 하회했던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현시점의 KOSPI 8배인 지수 5,000pt 선은 견고한 바닥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다만,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고유가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는 점은 지수의 조정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쟁 양상에 따른 변수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불가피하겠으나, 바닥을 확인하며 점진적인 안정화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연초 가파른 상승세 이후 일부 숨 고르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장기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일부 차이실현 빌미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시장은 실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 이 존재하는 만큼 지수 조정 시 일부 매수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펀드는 일부 시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벤치마크에 대한 복제율을 과거 대비 높였습니다. 가파른 지수 조정으로 인해 KOSPI의 PER 지표는 8배 수준에 도달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이 과거 대비 확대되었고 정부의 중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기조, 기업 실적 추정치의 상향 흐름이 빠른 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어 시장의 추세적인 변동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또는 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나 이익 가시성이 높은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적 추정치는 상향되고 있으나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세를 보여 가격 매력이 생긴 대형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화장품, 음식로, 조선, 방산, 의약, 증권 업종 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1분기 실적 발표 구간을 맞이하여 해당 업종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5월 학회기 예정되어 있고 해당 학회와의 연관성, 기술력을 보유하여 26년 라이선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하여 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은행, 증권 등 금융권은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ESS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 조정 발생 시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을 과거 대비 높일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마-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리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프레드는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국의 공적 채권 발행 물량 조절과 '100조 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정책 대응 의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스프레드의 과도한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국면이 이어질 경우, 금리 변동성 심화와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며 크레딧 스프레드 약세 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제 금리의 방향성이 안정되고 변동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유의미한 스프레드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특수/국고 3년 스프레드는 30~40bp, 은행/국고 3년 스프레드는 30~40bp, 회사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60~70bp, 여전AA-/국고 3년 스프레드는 70~80bp 수준을 전망합니다. 따라서 펀드는 당분간 현재 여전채 중심 벤치마크 대비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고 변동성 확대 지속 전망 하에 절대 금리 메리트와 롤링이 좋은 1.5~2년 구간 크레딧 편입 위주의 교체 매매를 추진하여 YTM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